

개미들, 적금 깨서 증시로

회사원 박모(40·광주 서구 풍암동)씨는 최근 은행에 넣던 적금을 깨 국내 주식형 적립식 펀드에 가입했다. 1년짜리 적금의 만기가 3개월 남았지만 약정 이자의 일부를 포기하더라도 적립식 펀드로 갈아타면 수익이 훨씬 나올 것으로 판단했다.

올들어 증시의 활황세속에 박씨처럼 은행의 적립식 예금(적금)을 증도에 해지해 펀드로 갈아타는 사람들이 늘고있다. 금융자산이 예금형에서 투자형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따라 고객 유치를 놓고 은행과 증권사간 금리인상 경쟁이 불붙고 있다.

◇금융자산 투자형으로 이동=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국내의 증시 활황에 힘입어 펀드 수익률이 높아지면서 확정형 금리에 만족하지 못한 은행권 가입자들이 적금을 깨 펀드에 가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광주은행은 지난해 말 3천80억원

저축성 예·적금 주식형 펀드로 갈아타기 은행·증권사 금리인상 등 고객유치 경쟁

이던 정기적금 잔액이 올 4월 말 3천 70억원으로 10억원이 줄어든 반면 펀드 판매 잔액은 1조2천400억원에서 1조3천300억원으로 4개월만에 900억원(7.26%)이나 늘었다.

신한은행의 경우 올들어 4월까지 정기적금 증도해지 건수가 8만4천 229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의 7만4천 647건보다 13% 늘었다. 잔액 기준으로는 올들어 정기적금은 1% 줄어들었으나 적립식 펀드는 44%나 폭증했다.

우리은행의 증도 해지건수도 11만 4천542건으로 1년전 9만7천287건에 비해 18%나 급증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의 예금은

행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 예금은행의 예금 가운데 정기적금과 정기예금 등 '저축성예금'은 지난해 3월 16조9천60억원에서 올해 3월 16조9천158억원으로 98억원(0.05%) 증가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한 보통예금 등 '요구불예금'은 2조7천107억원에서 2조8천477억원으로 1천370억원(5.0%) 늘어 뚜렷한 '자금의 단기화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금리인상으로 고객유치=광주은행은 올들어 금리우대와 웨딩컨설팅 등 다양한 혜택을 주는 '문화수도후원 예·적금'과 '하늬문플랜적금'을 판매한데 이어 최근에는 연 5.2%의 금

리를 적용한 뉴스타트고객감사 특판 예금을 출시, 이달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하는 등 고객유치에 나서고 있다.

HSBC도 3.5%이던 '다이렉트뱅크' 예금 금리를 이달부터 3개월간 연 5%대의 금리를 적용해 판매에 들어갔다.

증권사들은 수시입출금식 예금인 CMA(자산관리계좌) 금리를 잇따라 올려 고객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대증권은 RP(환매조건부채권)형 CMA 상품의 금리를 이달부터 0.1%포인트 올려 연 4.3~4.5%로 적용하고 있다.

한화증권은 주식투자과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CMA를 최고 4.5%의 확정금리로 이자를 주기로 했으며 대신 증권도 CMA 금리를 연 4.3~4.5%로 0.15%포인트 올렸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기아차 세계 빈민어린이를 위하여 기아자동차(주)는 지난 1일 서울 국내영업본부 사옥에서 국제 아동양육기구인 한국 컴패션에 3천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오피러스 광고모델인 차인표·신애라(똥췌) 부부가 참석했으며, 기금은 전 세계 빈민 어린이들을 위해 쓰이게 된다. <기아자동차 제공>

1,000억 주식부자 138명

증시 호황 힘입어 1위 정몽준 의원

주식시장의 호황에 힘입어 1천 억원대 주식거부(巨富)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3일 세계 전문사이트인 재벌닷컴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1천707개사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3천700여명의 보유 주식가치를 지난 5월 말 증가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1천억원대 주식부자가 138명에 달했다. 1천억원대 주식부자 수는 1월 말에 83명이었으나 4월 말 92명으로 늘어난 뒤 코스피지수가 신기록 행진을 이어간 지난 달 46명이

새로 이름을 올렸다. 특히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현대중공업의 최대주주인 정몽준 국회의원의 주식부자 1위 다툼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정 의원은 현대중공업의 주가급등에 힘입어 보유지분의 가치가 2조6천200억원으로 늘어나 형인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2조5천11억원·2위)을 914억원 차이로 누르고 1위 자리를 지켰다. 3위인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보유지분 가치는 1조9천401억원으로 조만간 2순위대 주식부자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신동빈 롯데그룹 부회장이 1조7천974억원으로 4위, 형인 신동주 일본 롯데 부사장이 1조7천404억원으로 5위를 차지했다. 한때 1위까지 올랐던 이근희 삼성그룹 회장은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 주가가 부진한 흐름을 보인에 따라 보유지분의 가치가 1조6천27억원·2위)을 914억원 차이로 누르고 1위 자리를 지켰다. 이 밖에 미성년자 주식부자 순위는 전운수 성원건설 회장의 아들인 동영(14)군이 1천28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은행권, 환경사업 앞다퉈 진출

企銀·BC카드·뎃발 할인 카드 발행기로

태양광 등 자금 수요 늘자 투자금 조달...수익원 창출

SC제일은행은 동양생명, 금호생명, 광주은행, 수협은행 등과 함께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투자금을 조달할 예정이다. 신한은행도 최근 기술보증기금과 태양광 발전 사업자의 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70억원 한도에서 시설 자금을 낮은 금리로 대출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2011년까지 총 전력 생산량의 7%를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하기로 하고 관련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태양광 발전 사업의 경우 작년 2월 말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발전설비 용량은 80MW(메가와트)를 넘어서는 등 관련 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기업은행 호남본부와 BC카드사, 광주지역 유통업체인 뎃발 등 3개 기관은 할인카드를 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카드는 뎃발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게 되면 구입금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또 SK주유소를 이용하면 0.1%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뎃발(대표 기영진)은 2001년 창립된 광주지역 유통업체로 광주 16 곳, 전북 익산 1 곳 등 모두 17 곳의 중형 할인마트 형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최근 은행들이 환경 사업에 앞다퉈 뛰어들고 있다. 태양광이나 풍력, 조력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이 활기를 띠면서 자금 수요가 늘어나자 은행들이 새로운 수익원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신안에 건설되는 세계 최대 용량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 사업에 금융주관사로 참여했다. 총 사업비 1천 576억원이 투입될 이 태양광 발전소는 축구장 80개 규모의 18만평 부지에 총 10만9천개의 광전지 모듈이 설치되는 초대형 사업이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대주건설 용인에 초등학교 건립 기증

100억 투입 24학급 규모... 오늘 용인교육청과 업무 협약

대주건설은 자사의 사업지인 경기도 용인 공세지구에 초등학교를 설립해 용인에 무상기증하기로 했다.

대주건설은 4일 용인교육청과 업무협약과 조인식을 갖고 내년 완공을 목표로 한 24학급 규모의 초등학교 건립에 들어간다.

이번 초등학교 건립에는 3천여 평 이상의 부지에 100억원이 투입

되며, 지난해 분양한 2천가구 규모의 용인 공세지구 '피오레'아파트 입주자들의 교육여건 개선 요구를 적극 수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대주건설 관계자는 "현재 교육당국과 협의중인 세부안이 확정되는 대로 공사에 들어갈 방침"이라며 "입주예정자들의 요구가 높은 데다 관할 교육청이 예산 부족으로 학교 건립에 적극적으로 나서

기 힘든 상황을 고려해 직접 학교를 건립해 기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주건설은 지난 2002년 대주문화재단을 설립한 뒤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2억원 이상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기업이익의 사회환원에 적극 앞장서 왔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물자구매 조달서비스 MOU 체결

토공지역본부·광주 조달청

한국토지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한우석)와 광주지방조달청(청장 양준호)이 조달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광주지방조달청은 최근 광주시 서구 양동 토지공사 광주전남본부에서

'물자구매관련 조달서비스 이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예산절감과 공공조달 부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이번 협약 체결로 향후 토지공사에서 필요한 물품구매와 용역 공사계약 등을 대행하게 된다. 토

지공사는 조달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조달청의 전문적인 원가산정을 바탕으로 6%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광주지방조달청장 관계자는 "이번 MOU체결로 토공 광주지역본부의 조달청 이용 실적이 지난해 263억원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토지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로케트전기
아이디에스와 제휴 OTP 전지시장 진출

로케트전기는 LCD 전문제조업체인 아이디에스와 전략적 제휴를 위한 기술협력 협정을 맺었다고 최근 밝혔다.

로케트전기가 카드에 장착할 전지를 개발하고 아이디에스가 개발중인 OTP(일회용 비밀번호) 카드에 이를 장착한다는 계획이다.

이에따라 로케트전기는 리튬 박형 전지분야에, 아이디에스는 디스플레이가 적용되는 카드 분야에 상호 공급 우선권을 갖게 된다.

로케트전기는 OTP카드 시장은 다음달 금융보안연구원의 OTP 통합인증센터 오픈을 시작으로 금융결제시스템 기업용 ID카드, 교통카드 등 적용범위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OTP란 비밀번호를 한번 만들어 놓고 계속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다른 비밀번호가 생성되는 비밀번호 생성기를 말한다.

/이종태기자 jitee@

연료비가 획기적으로 절감되는 난방

‘갈레오’ 원적외선 필름난방이 책임집니다.

난방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됩니다. 원적외선 필름난방은 고효율의 복사열 난방방식이기 때문에 연료비가 획기적으로 절감됩니다. 원적외선에 의한 복사열은 시온구 연결 원적외선을 방사하므로 필름효과가 있습니다. 필름난방에서 발생하는 강력한 원적외선 에너지는 우리 몸 내부를 먼저 따뜻하게 하여 혈액순환을 좋게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쉬운 난방공사 반도체 도핑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갈레오 필름난방은 당일 시공하여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매우 쉬운 난방공사를 실현합니다.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 안심하세요. 타제품 열선대신 탄소명상발열체 사용으로 전자파제로

대리점 및 취급점 모집

(주)태양상사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동 TEL. (062)262-0101

(株) 행복출발은

창사이래 10년동안 오직 재혼만 전문으로 열과 성을 다한 결과 이제는 국내 최대 재혼 회원을 보유하고 최고 재혼교제율을 자랑하고 있으며 각종 언론매체에서 집중조명 되고있는 국내 대표 재혼정보회사입니다.

회원수 1위 한국대표 재혼정보회사

초대줄 커리어매니저 0명 모집

다양한 직업의 노블레스 여성회원 다수보유

(株) 행복출발 호남지역총괄 (062) 527-3388

인터넷 주소창에 **주소(D) 마들닷컴 > 90** 을 치세요